

화폐와 정체성:

유로와 유럽의 사례

조 홍 식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빌리그의 일상적 민족주의 이론이나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은 정치 또는 경제적 논리에 기초하여 추진된 단일 화폐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한다. 유럽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로를 통해 유럽 차원의 정체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거시 역사적으로도 특정 화폐와 해당 민족 공동체의 관계는 단순히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무척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해 적어도 10년 이상 노력하였고, 그로 얻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강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은 외부와의 관계 및 경계 지역에서 형성되고 드러나는 특성을 가진다. 유로존에 속해 있는 국가와 그 밖에 위치한 국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위기를 통해 표출되었다. 또한 유로존은 그리스, 에스파냐 등이 국제 시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지원책을 만들어 내는 등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서 통화 통합에 이은 재정 정책 협력 또는 통합의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일국 일 화폐'의 원칙은 하나의 국가가 자신이 만들어가는 민족 공동체의 경제적 수단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통제하는 것이었다면, 유럽은 '일 화폐 일 공동체'로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내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화폐, 정체성, 유로, 유럽, 유럽연합, 유로존

I. 화폐와 정체성: 일국 일 통화(One Nation, One Currency)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듯이, 하나의 국민경제에서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족국가라는 단위는 민족이라는 문화적 단위와 국가라는 정치적 단위의 일치 현상으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의되고 있는데(Gellner, 1983: 3-5), 여기에 화폐는 경제적 단위로 까지 확장된 민족국가 경제체제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미스(Smith, 1991: 14)는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구체적 요소를 나열하면서 소속원들이 지리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동의 경제체제를 들고 있다. 다른 네 가지 요소는 1) 역사적 영토, 2) 공동의 신화와 역사적 기억, 3) 공동의 공적대중문화, 4) 모든 소속원에 대한 공동의 법적 권리와 의무이다. 화폐는 소속원들이 하나의 경제 단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민족 정체성의 다른 요소의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폐에 그려진 지도나 풍경, 사건과 인물은 모두 역사적 영토나 공동의 신화 및 기억을 상징하며, 특정 화폐를 둘러싼 대중적 사용 방식은 다른 아닌 공동의 공적대중문화의 중요한 축이다. 끝으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화폐야말로 소속원의 공동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표현이기도 하다. 달리 말해서 화폐는 단순히 경제 활동을 위해서 고안된 수단일 뿐 아니라 민족국가 경제체제라는 복합적 결정체의 상징이자 사용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내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도입하는 것은 ‘민족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정도로 화폐는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이다.¹ 다른 한편 스미스는 유럽 차원의 정체성 형성 가능성과 그 양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적어도 일부에게 유로화의 채택은 민족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The Economist 2008).

만일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공통의 유럽의 문화적 유산에 기초하면서 그 유산으로부터 공통의 유럽 신화, 상징, 가치, 기억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범 유럽적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강력하고 활기찬 민족 문화와 경쟁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범민족주의가 기존의 개별 민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Smith, 1991: 175)

1999년 기존 11개국의 화폐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유로(Euro)라는 초국적 화폐가 만들어졌을 때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나타난 가장 커다란 국제통화질서의 역사적 변화라고 평가하였다. 에이켄 그린은 “세계 생산의 20%와 무역의 30%를 차지하는 국가들 사이에 형성된 화폐 연합은 초유의 일”(Eichengreen, 2008: 221)이라고 규정하였다.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로의 출범은 사실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 민족 국가가 주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국의 화폐를 포기하고 초국적 화폐로 대신하였다는 점에서 전무한 사건이자 실험이었던 것이다. 물론 금본위제나 제한적인 공동화폐 운영의 실험은 존재하였지만 이처럼 종합적이고 완전한 화폐 통합은 처음 있는 시도였다. 또한 금본위제나 금·은 복본위제(bimetallism) 화폐연합은 기술적, 기능적인 공동 화폐정책이었지만 실제로 대중은 민족 정체성으로 상징되는 화폐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고 공동의 역사적 상징과 신화, 기억을 담은 디자인의 동전과 지폐를 일상적으로 이용하였다². 하지만 유럽의 경우 2002년 기존의 화폐를 모두 새로운 유로화로 대신하는 결정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시행하였다. 독일의 도이치마르크, 프랑스의

2. 라틴화폐연합(Latin Monetary Union)은 1865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1873년에는 스칸디나비아 화폐연합(Scandinavian Monetary Union)이 형성되었다. 전자는 금·은 복본위제 국가들의 화폐연합이었고, 후자는 독일의 금본위제 전환에 따른 상호의존적 주변국의 공동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Eichengreen, 2008: 15-16) 하지만 금본위제 세계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고정환율제에 가까운 화폐연합이었지만 실제로 화폐의 명칭이나 모양을 하나로 통일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5프랑 또는 5리라 은화를 보면 이탈리아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은화를 사용하였고, 프랑스와 벨기에에는 프랑이라는 명칭을 같이 사용했지만 각각 나폴레옹 3세와 레오폴드 2세의 초상을 담고 있었다.

프랑, 네덜란드의 길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프랑, 이탈리아의 리라, 에스파냐의 페세타, 포르투갈의 에스쿠도, 아일랜드의 파운드, 오스트리아의 실링, 핀란드의 마르카 등이 1999년 유로가 출범하면서 기술적으로 사라졌고, 이어서 2001년에 그리스의 드라크마, 2006년 슬로베니아의 톨라, 2007년 키프로스의 파운드와 몰타의 리라, 그리고 2008년 슬로바키아의 코루나까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이들 화폐와 특히 화폐의 명칭은 수십 년에서 수세기에 걸쳐 사용되어 왔던 것인데 유럽화폐통합으로 그야말로 단숨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화폐와 정체성의 관계를 유로라는 실험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유로라는 단일 화폐의 형성이 유럽 차원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는가? 유럽 수준의 집단 정체성은 기존의 민족 정체성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강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2010년 봄 뉴스를 장식했던 유로화의 위기는 과연 유럽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회과학에서 화폐와 정체성의 상호 관계는 언뜻 보았을 때 상당히 요원한 것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화폐란 경제학에서 독점해 온 영역이며 계산 단위, 교환 수단, 가치 저장 등 그 기능적 차원에서 주로 접근되어 왔기 때문이다. 유럽의 화폐 통합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도 최적 화폐권 이론(OCA, Optimum Currency Area) 등을 통해 화폐가 적절하게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왔다. 여기서 화폐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이다. 먼델과 맥키논 등은 최적의 화폐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지역의 경제 주기가 일치하고, 둘째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나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비대칭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 기능이 중앙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undell, 1961; McKinnon, 1963).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주기나, 생산요소의 유동성, 또는 재정정책의 중앙화라는 기준에서 유럽이 적절한 화폐권을 형성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조심스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다수 국가들은 화폐 통합을 추진하였고 일단은 성공적으로 단일 화폐권을 출발시켰다.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불확실하지만 정치적인 의지가 강력하게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정체성의 영역은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에서 주로 문화적 영역과 연결하여 언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민이나 종교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정체성을 사실 화폐와 연관하여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화폐와 정체성을 연결하여 연구한 드문 논문으로는 헬레이너(Helleiner, 1998)를 들 수 있다. 그는 화폐가 다섯 가지 방법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활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화폐는 집단 전통과 기억의 감정을 구성하는 민족주의 상징의 유통수단이다. 오래 전부터 국왕의 초상이 담긴 화폐가 유통되면서 민족적 일체성을 강화하였고, 최근 현대 사회에서도 역사적 인물이나 상징을 대거 화폐에 활용함으로써 민족주의의 중요한 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민족 구성원간의 소통 효율을 높임으로서 유사한 사고의 틀을 전파한다. 같은 계산의 단위, 교환의 수단, 가치의 저장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구성원 사이에는 공동의 인식과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그에 따라 소통의 효율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같은 화폐 사용의 기억을 창출하여 공동 운명의 민족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한다. 왜냐하면 화폐는 개인사에서의 역할을 초월하여 공동의 기억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기 때문이다. 인플레이로 인한 고통이나 반대로 고성장의 풍요의 기억은 모두 화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집단 기억의 고리를 형성하는 일이 빈번하다. 넷째, 대중의 희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 주권의 인식을 심어준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에 반대하고 물가 안정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는 화폐는 단순한 경제 수단이 아니라 민주적 성과로 인식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화폐는 민족주의와 연관된 거의 종교적인 믿음을 강화하며, 특히 화폐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그렇다. 사실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화폐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믿음은 거의 종교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교적 믿음은 의식/무의식적으로 민족 공동체의 자연성과 당위성을 강화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그리고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화폐가 정체성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현실적으로 유

로는 이미 유럽인들에게 유럽연합의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유럽연합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유로바로미터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유럽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유럽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46%는 유럽연합 내에서 여행하고 유학하고 노동할 수 있는 자유라고 답하였고, 두 번째로 37%가 유로라고 밝혔다(Commission Européenne, 2010: 141). EU는 유럽인들에게 우선은 여행, 유학, 노동 등의 ‘생활공간’이고 그 다음으로 같은 돈을 사용하는 ‘화폐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생활공간과 화폐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강화의 작용을 한다.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화폐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수월하게 여행, 유학, 노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로화가 기술적으로 도입되었던 1999년 유로바로미터 조사를 살펴보면 유로권에 참여하는 11개국의 여론은 68% 대 26%의 비율로 유로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유로권 참여를 거부한 영국(25% 대 59%)이나 덴마크(42% 대 50%) 등에서는 반대여론이 찬성을 크게 앞질렀다(European Commission 1999, 73). 이러한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사실은 경제적 계산과는 별개로 여론의 찬반이 유로권 참여 또는 불참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로 지폐와 동전이 물리적으로 도입된 2002년 조사에서는 흥미로운 질문을 발견할 수 있다. 유로나 과거 자국화폐에 대한 애착(attachment)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유로에 참여하는 12개국에서 61%는 과거 자국 화폐에 애착을 느낀다고 답하였고, 41%가 유로에 대해 애착을 느낀다고 밝혔다. 여기서 상당히 놀라운 점은 과거 자국 화폐 애착이 유로를 앞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 화폐 유로가 41%에 달하는 높은 애착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European Commission, 2002: 77).

이론적으로 화폐가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째, 화폐는 정치 공동체의 상징으로서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빌리그(Billig, 1995)가 분석한 일상적 민족주의(banal nationalism)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기존에 존재하는 민족국가의 민족주의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그곳에서는 지속적인 ‘깃발

날리기'(flagging)를 통해 민족성을 상기시키는 기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일상적 민족주의의 환유적 이미지는 강렬한 열정으로 의식적으로 흔들어 대는 깃발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조용히 걸려 휘날리는 국기라고 말한다. 빌리그는 이 같은 지속적 깃발 날리기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체질화되어 있는 습관을 통해 민족주의가 재생산된다는 입장이다. 일상적 민족주의론은 유로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다. 화폐만큼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는 상징도 찾기 어렵다. 다만 유로의 경우 일국 일통화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다국 일통화의 상황이라는 특징이 존재하며, 우리의 질문은 과연 유로가 유럽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작용을 할 것인가이다.³

둘째, 화폐는 공통의 역사의 산물이다. 달리 말해서 계산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협상과 협력,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생성되며 유지되고 관리된다. 특히 화폐는 단순한 교환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주권을 상징해 왔으며, 그런 의미에서 아글리에타와 같은 조철학파에서는 화폐는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Aglietta, 1992). 특히 현대 화폐의 특징은 금이나 은과 같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화폐가 아니라 신용화폐(fiat money)라는 점이며, 이 경우 화폐의 가치는 결국 발행 국가, 정부, 혹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화폐에는 공동체의 역사가 담겨있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새겨져 있다. 독일인들이 도이치마르크의 포기에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바로 도이치마르크가 전후 독일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기 때문

3. 유럽은 일반적인 민족 공동체라기보다는 선별적인 정책 공동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럽 차원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기존의 민족 정체성과 비교하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정체성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위에서 인용한 스미스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 유럽 정체성은 기존의 민족 정체성을 포괄하는 메타 정체성이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화폐와 경제 정책에 국한된 부문(sectoral) 정체성이라고만 보기에 유럽연합은 이미 전체적 정치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히스(Hix, 1999)나 켄르몬(Quermonne, 1993)은 오래 전부터 유럽을 하나의 정치 체제(political system)라고 보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로서 유럽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Fligstein, 2008; Bruter, 2005).

이다. 그래서 유로를 포함한 모든 화폐는 집단적 기억의 결정체이며 그 때문에 강력한 경로 의존성이 존재한다.

셋째, 화폐는 국제사회에서 서로 경쟁한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은 타자와의 경쟁과 마찰, 대립의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에서 유로화는 미국의 달러와 경쟁하는 관계이다. 특히 기축통화의 자리를 놓고 유로는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유로화는 화폐 협력, 페그(peg), 실질적 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역외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유로화를 거부하는 영국이나 덴마크, 스웨덴이 있는가 하면 유로화 도입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동구권 회원국들도 있다. 아프리카의 상당 국가는 유로화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로권이다. 이 모든 차원에서 유로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과정에서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한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유로화는 유럽연합을 상징하는 화폐일 뿐 아니라 유럽의 금융경제 세력을 의미한다. 내부적으로도 유로는 달러나 위안, 엔과 같은 기존의 화폐와 스스로를 구분 짓는 중요한 상징이다.

이 논문은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 이론적 방향에 따라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유로 출범 이후 10여 년간 유로의 일상적 사용이 가져온 유럽 정체성의 부상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그 특징과 차별성을 조망해 본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도는 하나의 경향을 과거 민족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조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역사의 산물로서 유로의 준비와 등장, 확대와 위기 등을 논의한다. 화폐를 역사적 기억의 결정체라고 본다면 유로와 정체성의 관계는 1999~2002년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정치 경제 속에서 유로의 역할을 규명하면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유럽연합의 주변에서 그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한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는 국가들에게 유로화가 가지는 상징적 가치에 주목할 것이다.

II. 유럽 정체성 만들기

빌리그가 분석한 ‘깃발 날리기’는 대표적인 민족 국가의 상징을 통해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틀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 그러나 “깃발만이 근대 국가성의 유일한 상징은 아니다. 동전과 지폐 역시 전형적으로 민족적 상징을 담고 있지만 일상적 상거래에서 이를 주목하는 사람은 없다”(Billig, 1995: 41). 어떤 의미에서 화폐는 깃발보다 더 자주, 더 친숙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 박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깃발과 마주치는 빈도보다 화폐를 사용하고 생각하고 활용하는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의식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아비투스야말로 의식과 무의식,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적 관계를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Bourdieu, 1979: 190-193). 부르디외에 의하면 아비투스는 ‘제2의 본성’과 같은 것으로서 친숙한 사회 세계의 습관, 실천과 일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비투스란 달리 표현하자면 한 개인이 살아온 역사가 체질화 되어있는 것인데, 하나의 새로운 본성처럼 너무 자신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와 역사의 산물이라고 의식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⁴

화폐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화폐를 접하고 사

4. 어떤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끼다는 점은 정체성의 형성에서 무척 중요한 차원이다.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민족, 정치 및 문화 공동체 등을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범주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결속력은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진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의 기능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그것이 구조화된 산물(opus operatum)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공간에서 계급적 아비투스는 그 계급이 놓여있는 일상적, 구조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하나는 아비투스를 통해 사회를 구조화하는 작동(modus operandi)을 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실천을 규정하는 계급적 아비투스의 개념을 민족적 아비투스로 확대해 보면 ‘깃발 날리기’나 화폐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여기서는 국제 사회)를 인식하고 규정하면서 구조화하는 틀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용하고 저축하면서도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는 않는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화폐의 단위를 언젠가는 배웠을 것이고, 화폐의 모양과 색상, 그림과 상징을 외우고 내면화하여 차별화하는 방식을 터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학습과 반복적 실천을 통해 일종의 본성처럼 몸에 배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화폐를 사용한다. 이처럼 성장 과정에서 습득한 화폐의 아비투스¹는 다른 여러 종류의 기제들과 함께 자신이 특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의 본성처럼 강제할 수 있다. 빌리그의 표현처럼 “이러한 민족성을 상기시키는 것들은 단순한 배경을 조국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데 사용된다”(Billig, 1995: 43). 부연하자면 백두산 천지는 단지 높은 화산과 호수가 아니라 민족정기의 근원으로 인식되며, 그린백(greenback)이라 불리는 달러는 지불 수단일 뿐 아니라 미합중국 경제세력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유로는 처음부터 정체성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푸른 색 바탕에 열두 개의 노란 별을 그린 유럽기(旗)는 유럽연합의 상징으로 채택되었고, 마찬가지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는 유럽가(歌)로 선택되었다. 유럽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정치적 단위에 실질적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선택된 것이다. 민족국가가 가지는 정서적 애착과 결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유럽공동체 시절부터 국제 경제기구에 일종의 혼을 불어넣으려는 작업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특히 유럽 통합이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운동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관료 중심의 엘리트 프로젝트라는 비판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유로라는 화폐에 있어 정체성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우선은 화폐로써 가지는 경제적 기능과 이를 채택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일단 기존의 화폐를 폐지하고 새로운 단일 화폐를 창설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실제로 이 화폐의 상징적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징 기제로서의 화폐 기능이 경제 또는 정치적 기능보다 훨씬 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다.

화폐의 명칭은 개인의 이름과 같이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달러와 영국의 파운드는 국제정치경제 헤게모니의 상징이었고, 독일의 마르크나 프랑스의 프랑도 모두 주요 화폐로서 그 나라를 상징하였다. 유로화의 명칭이 결정되기 전에 처음 유럽이 사용하던 화폐 단위는 에큐였다. 1979년 유럽화폐제도(EMS)를 출범시키면서 당시 이에 참여하는 다양한 화폐 바구니(basket)를 만들었고, 그 단위로 유럽화폐단위(ECU, European Currency Unit)의 이니셜을 따서 에큐라고 불렀다. 그러나 다른 유럽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명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니셜은 동시에 다른 의미를 포괄하도록 하는 연상이나 유추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 정해진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유럽공동체의 IT연구를 위한 유럽전략프로그램(ESPRIT)⁵은 프랑스어의 정신(esprit)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다. 1990년대 폴란드, 헝가리 경제구조조정지원정책(PHARE)⁶도 프랑스어의 등대(phare)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다. 화폐 단위 에큐는 프랑스어로 ‘에퀴’라고 발음되며 이는 중세부터 18세기 정도까지 실제로 사용되던 화폐 단위였다. 따라서 1970년대 말부터 유로가 등장하는 1999년까지 20여 년 동안 일상에서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유럽공동체의 전문기술용어로 사용되었던 화폐 단위는 프랑스적인 상징성과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중적인 활용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럽의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있어 화폐를 통한 통합과 사회화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로라는 화폐 단위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1995년 12월 마드리드 유럽이사회에서였다. 프랑스의 경우 원래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에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길 희망하였지만 유럽은 1979년의 6개국에서 이미 15개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제 더 이상 프랑스의 주장을 다수에게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국가의 상징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명칭을 선호하였다. 결국 유로라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명칭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유럽(Europe)의 앞부분을 인용한 유로(Euro) 명칭에 덧붙여 €라는 상징도 동시에 고안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유로의 기호는 유럽문명의 요람이라

5. European Strategic Program for Research in Information Technologies.

6. 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Restructuring their Economies.

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자 중 엡실론(ϵ)을 연상시키며, 중간에 두 개의 줄은 평행을 이루며 유로화의 안정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화폐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경제적 차원을 초월하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의미 부여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유럽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유럽집행위라는 초국적 기구가 정체성 만들기의 일환으로 다듬어 낸 유로는 1999년 11개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2002년 구체적인 지폐와 동전으로 생산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었다.⁷ 동전의 경우 한 면에는 화폐의 가치와 유럽의 지도가 그려져 있고, 다른 면에는 화폐를 발행한 국가가 선택한 디자인을 사용한다. 이처럼 유로 화폐는 유럽인들이 가지는 이중적 정체성, 즉 민족과 유럽의 중복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동전에 그려진 유럽 지도는 유로 발행 당시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15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로가 유로권 국가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화폐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지폐의 경우 오스트리아 디자이너 로버트 칼리나(Robert Kalina)의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동전과는 달리 양면이 모두 공통된 테마를 표현하고 있다. 유럽 건축의 역사에서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을 상징하는 모티브들이 그 테마이며, 앞면에는 창과 문, 그리고 뒷면에는 다리로 유럽의 공통된 역사를 묘사하고 있다. 지폐는 그야말로 유럽이 하나의 문명에 속했고, 그 역사가 매우 길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⁸

마지막으로 유럽중앙은행이라는 통일된 기관 역시 유럽의 결속력을 상징

7. 1999년부터 2002년의 시기는 유로 도입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유로를 도입한 국가들은 계속 자국 화폐를 사용하였지만 자국 화폐와 유로의 환율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로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였다. 이 시기에 물건 가격은 원래 자국 화폐와 유로로 병기되었고, 사람들은 유로의 도입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2년 1월에는 유로 지폐와 동전을 대거 유통시키면서 기존의 다양한 국가 화폐를 회수하였다.

8.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로 지폐는 클래식(5유로), 로마네스크(10유로), 고딕(20유로), 르네상스(50유로), 바로크-로코코(100유로), 아르누보(200유로), 20세기 모던(500유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낮은 단위의 지폐로 시작하여 시대를 거슬러 내려오면서 점점 높은 단위의 지폐로 연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상적=역사적이라는 등식을 통해 유럽이 하나 됨을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심어줄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한다.

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중앙은행에는 총재라는 살아 있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존재가 유로의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에는 초기(1998~2003년)에 네덜란드의 빔 도이센베르흐(Wim Duisenberg)에 이어 2003년부터 프랑스의 장 클로드 트리셰(Jean-Claude Trichet)가 역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스위크는 유럽중앙은행 트리셰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위로 평가하고 있다(Newsweek, 2008).⁹ 이에 덧붙여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이라는 가장 강력한 화폐를 보유하던 국가의 경제 수도 프랑크푸르트에 자리함으로서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강력하고 안정적인 가치의 보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연방은행(Bundesbank) 역시 프랑크푸르트에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의 프랑스식 발음 프랑포르(Francfort)는 강한 프랑(Franc fort)을 의미하는 프랑포르와 똑같다.

이제 유로화가 기술적으로 도입된 뒤 10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구체적 동전과 지폐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9년이 지났다. 비록 현재 유로화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권의 사람에게 이미 유로라는 명칭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며, 결국은 유로가 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동시에 유럽이라는 공동체의 틀이 동전과 지폐를 통해 유럽인들의 아비투스로서 체화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유로는 이제 엘리트들이 고안해 낸 그들만의 유럽 통합의 산물이 아니라 유럽 대중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럽이라는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리고 유럽은 최근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역사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합이라는 사실도 상기시킨다. 결국 유로 동전과 지폐는 구체적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적 고리로 작동하며, 민족들 사이에 형성된 국경을 허무는 심리적, 상징적,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로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다양한 기능을 넘어서 훨씬 심층적인 유럽 통합의 기제라고 할 수 있으며, 유럽 단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으

9. 1~3위는 순서대로 버락 오바마, 후진타오, 사르코지로 이어지며, 4~6위는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버냉키, 트리셰, 시라카와 순이다.

로 기여할 수 있는 상징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유로라는 새로운 화폐가 유럽인들의 정체성이 미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로는 유럽이라는 집단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 어찌 보면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고 심층적으로 — 적극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집단 정체성은 반드시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앤더슨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모든 소속원을 알 수는 없지만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공동의 매체, 지로나 박물관과 같은 상징을 통해 하나 됨을 상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Anderson, 1991). 다른 모든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로라는 화폐야말로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이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유럽 차원의 정체성이란 것이 형성되는데 유로의 기여 정도는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브루터는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럽적 상징이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냈다: “전체적으로 유럽의 통합 상징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높다.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상징은 뉴스보다 유럽 통합에서 더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는 상징과 제도적으로 구상된 이미지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성격과 의미,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포함 대상에 대한 인식을 그려내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Bruter, 2003: 1167). 이 연구의 화폐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해석적 분석이 계량적 분석 결과와 일치하다는 의미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을 대신하거나 약화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럽은 여전히 초국적(transnational) 정체성으로 민족 정체성을 포괄하는 것이지 아직 이를 대체할 만큼 강하고 배타적인 정체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성격 자체를 유럽과 민족의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유로화의 디자인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유로바로미터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인들은 과거 자국의 화폐와 새로운 유럽의 화폐에 대해 모두 동시에 애착을 느낀다는 뜻이다.

III. 경제통화연합(EMU)의 정치

화폐는 경제 도구적인 성격을 초월하여 주어진 사회의 관계를 형성하게 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화폐는 지나간 사회적 관계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 기억의 장소 중 하나이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자국의 화폐에 대해 각기 다른 역사와 기억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유럽이 하나의 화폐를 만드는 경제통화연합의 정치라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빌리그의 일상화를 통한 무의식적 정체성의 상징으로서의 등장과 부상이 기존의 화폐를 폐지하고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엘리트와 대중 차원에서 모두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서는 각 회원국이 가지고 있었던 자국 화폐와의 정체성과 관련된 상징적 관계가 단일화폐 형성이라는 대외 경제 정책과 얼마나 강력하게 연관되었는가를 포착함으로써 화폐의 경제·문화적 이중적 특성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독일인들은 제1차 대전 직후 1920년대 초반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0년대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의 극단적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과 함께 창립된 강하고 안정적인 도이치마르크에 대해 그토록 애착을 갖는 것이다. 국제통화질서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결된 1970년대 유럽의 국가들은 통화 협력 체제인 스네이크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기간 동안 도이치마르크는 1973년 3월과 6월, 그리고 1978년 10월 등 무려 세 차례나 평가 절상되었다(Eichengreen, 2008: 153). 보다 강화된 통화협력체제인 EMS(European Monetary System)에서도 1979년부터 1992년 환율제도(ERM)의 위기까지 독일은 7차례 평가 절상을, 그리고 프랑스는 4차례 평가 절하를 하였다(Cameron, 1998: 201). 이상의 통계는 독일의 통화정책이 얼마나 물가안정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반면 비극적 인플레이션의 경험이 없는 프랑스인들에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영광의 30년’은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

과 서구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동시에 경험한 시기의 프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이후 국제 금융의 부상 및 금융자유화와 함께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인플레이-고성장의 전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981년 집권한 프랑스 좌파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의 실패는 프랑스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는 케인즈 식의 확장 정책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¹⁰ 따라서 1979년 유럽화폐제도 출범부터 1999년 유로의 출범까지 프랑스의 전략은 이 같은 국제적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독일과 비슷한, 또는 더욱 강력한 물가 안정적 통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시장과 사회에서 신용을 획득하고, 그를 통해 유럽 차원의 단일 화폐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일단 단일 화폐가 형성되면 유럽 경제 정부를 형성하여 보다 성장 지향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희망이다.

유럽통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독일의 여론도 비단 통화부분에 있어서는 도이치마르크의 유지를 희망하였다는 점에서 얼마만큼 화폐가 공동 기억의 상징인지를 잘 보여 준다. 독일에서는 ‘유로 지지 = 유럽통합 지지 = 좋은 유럽인 = 좋은 독일인 = 군국주의와 민족주의 과거의 극복’라는 유럽 지지의 정체성과 ‘도이치 마르크 애국주의’(Deutsch Mark patriotism)가 서로 대립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Risse, 2003: 798-799). 유럽 지지의 정체성은 독일에서 1950년대 이후 주요 정치 세력이(기민당과 사민당) 모두 유럽 통합에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독일은 화폐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했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럽대륙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위상을 가진 프랑스가 이런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유럽 최고의 안정적 가치를 자랑하는 도이치마르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10. 새로 집권한 프랑스 좌파는 바로 직전 1979년에 형성된 유럽통화제도(EMS)의 틀 속에서 경기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활성화 정책의 결과는 무역 적자의 누적과 반복적인 평가 절하였다. 결국 1982~83년 프랑스 좌파 정부는 EMS 유지와 단독 경기 활성화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였고, 미테랑 대통령은 전자를 선택함으로써 유럽적 해결책의 모색을 선택하였다(Moravcsik, 1998: 269-272).

이에 비해 프랑스는 프랑을 포기하고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일국에 국한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패를 경험하였던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1984년부터 화폐 통합의 추진에 몰두하게 되었다. 비교하자면 독일은 반세기 동안 경제적 성공을 안겨준 도이치마르크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프랑스는 1970년대 초까지 성공적이었던 프랑이 세계적 위기에서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마르크가 기능성과 정체성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주었다면, 프랑스에서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체성을 쉽게 포기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정체성의 요인이 너무 강력해서 기능적인 부작용까지도 감내하는 사례이다(Cho, 2005). 영국은 국력이 쇠퇴한 이후에도 금융부분만은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였고 런던의 시티(City of London)는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런 영국이 유럽 단일 화폐를 도입할 경우 런던은 단숨에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더욱 확고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정치 문화와 민족 정체성은 자국의 상징인 파운드를 포기하고 자국의 화폐 정책이 대륙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결정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정치 문화에서 의회 주권의 원칙은 영국의 운명은 영국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영국은 결국 정치적 정체성이 경제적 이익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 자국 화폐의 포기를 결정한 것은 1989~90년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희생적 행동이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독일이 통일되려면 통일독일이 향후 더 확고하게 유럽이라는 공동 운명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독일은 통일을 얻어냈고 프랑스와 주변국들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단일화폐의 약속을 받아냈다. 독일은 마르크를 포기함으로써 통일을 얻었고, 이에 덧붙여 독일식으로 안정적이고 강한 단일화폐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약속받았다. 독립된 중앙은행과 물가안정이라는 유일한 목표 설정,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프랑크푸르트 유치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강대국 이외에 중소 규모의 국가에게 있어 단일 화

페는 유럽의 중심에 속한다는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척도로 작용하였다. 1999년 단일화폐 출범에 동참한 베네룩스 3국¹¹ 및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아일랜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유로가 경제적 기능성과 정치적 정체성 면에서 모두 득을 가져다 준 경우이다. 베네룩스와 이탈리아는 통합 초기 회원국이었고, 특히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은 유럽통합에서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려왔으며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모두 유럽이라는 공동체에 속함으로서 확고하게 뿌리내린 경우이다.¹² 에스파냐의 경우 많은 해외 흡수자들은 유로 출범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에스파냐 사회당 정부는 유로 출범 이전 5년간 지속적으로 20%가 넘는 대량 실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EMU의 강력한 수렴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긴축 정책 기초를 유지하였다(Pérez, 2004: 161).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뒤 곧바로 이어진 1992~93년의 유럽환율위기(ERM Crisis)로 유럽통화제도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pm 2.25\%$ 이던 환율 변동폭은 1993년 8월 $\pm 15\%$ 로 확대됨으로서 10년 이상의 공동의 노력으로 구축되었던 환율안정지역이 국제 자본의 공격으로 붕괴되었고,¹³ 단일화폐의

-
11.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모두 각각의 전통과 사회적 특성을 지닌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1948년부터 베네룩스라는 관세동맹을 형성하였다. 존스에 따르면 “오늘날 베네룩스를 하나의 국가군으로 묶을 수 있다는 의미는 그들 동맹의 경험이 각각의 민족 정체성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증명한다. 그들의 동맹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 베네룩스는 단순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합이 아니다. 그들은 ‘베네룩스 국가군’이며 그 자체로서 하나의 케이스 그룹으로 다뤄져야 한다”(Jones, 2005: 167).
 12. 지중해 국가들이 유로를 채택함으로써 누린 경제적 혜택에 대해 프리든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리스는 1981년에 그리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1986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그로서 이들의 경제 개방은 가속화되었다. 1980년 이베리아 반도의 두 국가는 유럽연합보다는 다른 세계 국가들과 더 많은 무역 거래를 하고 있었지만, 1990년에는 유럽연합과의 거래가 15배로 늘었고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비해 두 배나 더 많았다. 사실 아일랜드,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경제화폐연합의 창설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국이었다(그리스는 유로의 최종적 단계인 2002년에 맞추어 조금 늦게 동참하였다). 이 네 나라는 모두 많은 다국적기업과 은행을 유치하였고 1만여 개에 달하는 외국 회사의 지점이나 자회사를 끌어들이었다. 그리하여 1985년부터 15년 동안 이 네 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액은 250억 달러에서 2,1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들 국가 투자의 1/10은 외국 투자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Frieden, 2006: 420).
 13. 하지만 유럽통화제도에서 형식적으로나마 환율변동의 한계를 두었다는 점은 일시적인 위기로 폭을 늘렸지만 향후 다시 변동 폭의 축소가 가능하다면 이를 시행하겠다는

출범은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환율 위기 직후인 1994년 미국 정치경제 학자들을 중심으로 출판된 공저에서 편집을 담당한 에이켄그린과 프리든은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유럽공동체의 12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믿기 힘들다. 왜냐하면 독일 통일로 인한 1990~91년의 비대칭적 충격과 1992~93년의 유럽 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의 마스트리히트 과정에 대한 추진력이 단지 좋은 조건 아래서의 약속에 불과하다는 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였다(Eichengreen and Frieden, 1994: 16). 그러나 1993~99년이라는 6년의 기간 동안 유럽의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경제 긴축 정책의 노력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단일 화폐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집권 세력과 엘리트에게 있어 단일 화폐 참여는 유럽의 중심에 속하는 길이었고 단일 화폐에서 나오되는 것이 경제적 비인기 정책보다 훨씬 두려운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사례도 이러한 점에서 대표적이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 특이하게도 시민들이 자국의 정치 제도보다 유럽의 정치제도를 더 신뢰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유럽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유로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탈리아의 엘리트와 대중 모두에게 ‘악몽’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처음부터 이탈리아와 리라를 유로권에서 제외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나 이탈리아의 노력은 이러한 시도를 무산시켰다. (Risse, 2003: 497-498) 1999년 단일화폐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참했던 그리스도 사후에 밝혀졌지만 통계조작과 같은 무리를 하면서까지 2001년에 참여한 것을 보더라도 이들 경제발전 수준이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취약한 국가에 있어 단일화폐는 선진국으로의 지위 상승이라는 자아만족과 이를 통한 유럽적 정체성의 강화가 강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전통적으로 안정적이고 강한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유로 도입 국가들은 선진국의 위상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민족 정체성의 자부심을 만족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유럽 화폐 통합이라는 거시적인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유럽 국가들의 합의를 표명한다는 뜻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희생을 감수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유로는 노력과 희생, 고통과 선택의 결과이다. 게다가 경제 발전 수준이 낮았던 국가는 예외 없이 유로 출범 이후 유럽 중심의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경제 호황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2010년의 경제 위기 과정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유로권 붕괴의 시나리오는 역사적 과정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로 도입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은 고통을 경험하였고, 유로를 통해 다년간 혜택을 누려왔다.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은 단일 화폐가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하였던 만큼 이를 되돌리기도 어려운 것은 물론 대중은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급속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유로를 탈퇴하는 단기적 이익이 상당하더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 이유이다. 이에 덧붙여 유로권의 참여가 단기적으로 탈퇴했다가 다시 이롭다고 생각하면 돌아올 수 있는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번의 탈퇴는 장기적인 또는 영원한 탈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유로권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IV. 유로의 효과와 한계

유로가 출범 10여 년을 맞이할 즈음에 발생한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는 유로와 유럽 정체성의 상호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폐를 형성하는 과정이 부르디외가 분석했던 사회적으로 구성된 아비투스(opus operatum)로서 유로였다면, 위기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위기 대응 논의와 정책은 사회를 구성하는 작동 요인(modus operandi)으로서의 유로의 역할에 주목하게 했기 때문이다.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위기 해결책에 대한 모색,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의 과정은 모두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유럽이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강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유로를 유럽차원의 단일 화폐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유럽이라는 세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전형적으로 유럽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프랑스의 세계적 영광을 되찾으려는 전략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프랑스의 최고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유로가 달러와 경쟁하는 유럽 세력의 상징으로서의 역할과 장기적으로 국제 기축 통화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세력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모라비치의 분석에 의하면 프랑스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럽 내에서 중심적으로 키우려는 프랑스의 위상(prestige),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드골주의적 성향, 통일 독일의 위협을 견제하려는 의도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독일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동하였다고 한다(Moravcsik, 1998: 405-417). 미테랑의 이러한 계산은 이후 시라크 대통령 아래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독일은 화폐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기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유일한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는 노선을 강조하였다. 독일은 통화 정책에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알레르기적 태도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적어도 유로화 초기에 다른 회원국에 강요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의 유일한 목표는 유로권의 물가안정이고 그로 인한 환율에 대한 결과나 대외적 영향은 다만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¹⁴ 실제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안정 뿐 아니라 경제 성장도 동시에 고려한다는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 유럽과 같이 중앙은행의 유일한 목표가 물가안정으로 제한된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독일은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 대해 전통적으로 의심의 눈길을 보내왔고, 심지어 프랑스도 물가안정 기조에서 벗어나 불안한 통화정책을 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화정책의 파트너에 대한 불신은 독일로 하여금 1997년 마스트리히트 조약과는 별개로 일명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강요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 집행위는 유로에 참여하는 국가의 재정

14. 독일에서는 1998년 9월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함으로써 슈뢰더 내각이 수립되었고, 당시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라퐁텐은 연방은행의 통화정책을 성장 지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슈뢰더 수상을 비롯한 반대파의 입장에 부딪쳐 이듬해 3월 사임하였다(Glyn, 2001: 1). 그 후 라퐁텐은 2005년 사민당과 결별하였고 좌익당으로 이동하였다.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며, 물가 안정을 해칠 만한 과도한 공공부채나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았다.

1999년 유로가 출범한 이후 10여 년 동안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유럽 차원의 경제 정부(economic government)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듯이 프랑스의 전략적 목표는 유로화를 통해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 올리는 한편 독일이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던 긴축 정책의 기초에서 벗어나 보다 융통성이 있는 통화 정책, 성장 위주의 통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프랑스 입장에서 본다면 단일화폐를 실현하는 장기간 노력한 대가를 유럽 경제 정부를 통해 얻어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단일 화폐 출범 이후에도 독일은 지속적으로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안정성장협약의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유럽의 경제정부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그러나 2010년 그리스 위기를 기점으로 제1차 1,100억 유로의 대 그리스 지원 정책과 제2차 7,500억 유로 규모의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¹⁵ 하나의 화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하나의 경제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위기의 시기에 더욱 강력하게 설득력을 가지고 제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유로권의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집행위의 권한도 확대되며, 유럽중앙은행이 부실 채권 매입이나 위협한 금융기관 지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는 모두 독일이 그 동안 거부하여 왔던 유럽 차원의 개입 또는 정책들이다. 독일은 집행위의 역할을 안정성장협약을 감시하고 집행하는데 그쳐야 하고 회원국 경제 정책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만의 경제정책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으며, 유럽중앙은행이 부실 채권을 떠맡게 되면 유로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무너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반대가 2010년 일시적이지만 한번에 허용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5.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1차 그리스 지원책에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800억 유로를 분담하고 국제통화기금이 30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제2차 유럽 안정화 대책은 유럽집행위를 중심으로 600억 유로를 책임지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4,400억 유로를 지원하며, 국제통화기금은 2,500억 유로를 담당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유럽연합 차원의 대규모 지원책과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그 동안 경제 정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던 프랑스적인 통화정책의 시각이 일종의 프렌치 커넥션을 통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이다. 가장 커다란 주(洲)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in-Westfalen)의 주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메르켈 독일 총리와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브라운 영국 총리가 유럽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유럽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금융시장이 불안에 요동치는 상황에서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와 국제통화기금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총재 트리셰는 독일식 통화정책의 전통을 무너뜨리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로권 내부의 운영방침이나 미래 청사진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은 분열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제 양국이 유로권을 운영하는데 자신의 진영을 어느 정도 형성하여 대립하기도 한다. 네덜란드와 같은 회원국은 독일의 입장에 가깝고 반대로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은 프랑스적인 접근에 더 유사하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동의 정책 틀을 형성하기 위한 장기간의 논의야말로 상호 사회화라는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집단정체성이란 반드시 합의나 동일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협력과 대립이 평화적이고 일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인식과 틀을 상호 인정한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학계의 대부분 분석은 유럽이 하나의 화폐를 갖고 있지만 재정 정책이 회원국별로 결정·집행되기 때문에 유럽의 대외적 영향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MacNamara and Meunier, 2002). 유로화가 실질적으로 대외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서 관료적으로 결정되는 통화정책 뿐 아니라 재정정책 역시 함께 동원되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로권의 국가들은 일정한 기준만 존중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재정 정책을 결정하여 운영해 왔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회원국의 재정정책이 반드시 하나의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이유에 따라 결정되어 왔고, 따라서 유럽연합과 유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은 결과적인 것이지 조정되거나 의도적인 것이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유로권 전체를 뒤흔드는 2010년의 위기로 인해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물가안정만을 추구한다는 정책 패턴은 일시적으로나마 붕괴되었다. 중앙은행은 어려움에 놓인 유럽의 은행을 구원하는데 동원되었고, 회원국 정부는 일제히 재정 건전성 회복에 참여함으로써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통화-재정 정책의 조율이 유럽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다른 한편 유로권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대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유로는 실제 국제 사회에서 달러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로화의 상징적 효과는 유럽적 정체성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 역내에서의 평가에서는 유럽연합의 의미에서 유로가 여행, 유학, 노동의 자유공간에 밀렸지만 역외에서 평가를 한다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경제 활동에서 유로는 이미 달러 다음으로 중요한 화폐로 자리 잡았다. 세계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다음이고, 무역이나 채권발행의 순위에서도 확고한 2위이다(Chinn and Frankel, 2008). 부연하자면 유럽인들은 어찌 보면 무의식적으로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세계 경제에서 유로화는 제2의 국제적 화폐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 정체성(exo-identity)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 사회에서 유로는 이미 유럽기나 유럽가를 능가하는 유럽 정체성의 상징으로 부상하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유럽에 속해 있지만 유로권의 안팎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의 충격에 가장 강력하고도 심각하게 노출된 아이슬란드에서는 신중하게 유럽연합 가입 및 유로화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The Economist, 2010). 심지어 아이슬란드 금융기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국 국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내려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비토권으로 위협하며 아이슬란드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을 정도이다. 아이슬란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로권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화폐의 평가절하를 걱정하거나 가입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동구권의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역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8년 1월 유로화를 도입한 슬로바키아는 유로권의 보호를 받은 반면 헝가리는 경제 위기로 IMF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동아시아 경제 위기와 마찬가지로 헝가리는 경제 위기가 닥치자 투자되었던 자본이 본국으로 회수되면서 외환위기에 노출되었고, 화폐의 평가절하와 그로 인한 외채의 가중현상이 발생하였다. 유로권 밖에 있더라도 덴마크는 크로나를 유로에 페그하였고 그 때문에 2008년 10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인상하였다. 유로화와 연동을 유지하려면 이자율 인상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스웨덴은 독립된 경제위기 극복 전략으로 이자율을 내렸는데 그로 인해 유로화에 대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번에는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The Economist, 2008). 유럽에서, 또는 유럽연합에서 유로권을 기준으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만큼 유로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며, 경제 지역에서는 유럽성(Europeanness)의 정도를 규정하는 잣대로도 적용될 수 있다.¹⁶ 유럽의 위기가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2010년에도 에스토니아는 유로를 채택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성공하였고, 2011년부터 유로권에 공식 가입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 아프리카에서 과거 프랑스 프랑과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던 국가들은 유로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중앙아프리카와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사실상 유로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중해 남부의 국가들 또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유로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에서 유로화가 과거 달러가 맡았던, 또는 다른 지역에서 맡고 있는 경성 화폐(hard currency)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유로는 아직 달러와 같이 완벽하게 뿌리를 내린 화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기가 제기되면 유로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위기에서 조정의 부담을 담당해야 하는 재정 적자가 심하거나 공공부채가 많은 회원국에서는 유로의 정통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

16. 예를 들면 독일(유로권 중심, 유럽연합) > 슬로바키아(유로권 주변, 유럽연합) > 덴마크(유럽연합, 유로와 페그) > 스웨덴(유럽연합, 자국화폐 크로나, 강한 경제) > 헝가리(유럽연합, 자국화폐 즐로티, 약한 경제) > 아이슬란드(비유럽연합) 등의 순으로 유럽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높다.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에서는 공무원과 노조 세력, 학생들이 긴축 재정에 항의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정부 테러리즘의 기미까지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원책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유로권 중심국의 여론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독일에서 그리스 지원안에 대해 “게으른 그리스인의 방만한 재정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이 바로 각 회원국 정치 세력일 것이다. 일부 독일 자민당 의원처럼 그리스가 자신의 문화유산을 팔아서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프랑스 쿠슈네르 외상처럼 그리스의 구원이 유럽이라는 운명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소리칠 수도 있다. 결국 정치 세력이 여론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유로에 대해서 만들어 내는 담론에 따라 여론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21세기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는 유럽의 취약한 고리를 노출시켰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위기는 유럽의 정책적 권한을 강화하는데 기회로 작동하였다. 매우 긴축적이고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제도화 되었던 유럽 통화 정책은 위기를 맞아 보다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유로가 위기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베니아와 같은 국가는 여전히 유로권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으며, 아이슬랜드 역시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거시역사적으로 과거 전쟁이 국가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Tilly, 1992) 경제 부문에서도 반복되는 위기가 정책 통합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유로 화폐권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확실하게 형성함으로써 안쪽에서 ‘우리’라는 개념과 밖에서 내부를 바라볼 때 ‘그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고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에 회원국이지만 유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나, 유럽연합의 외부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일종의 회색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유럽성의 정도라는 잣대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사실 유로만큼 유럽연합 내에서 중심성과 주변성을 확실하게 구분 짓게 해 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분,

계급, 인종, 성별 등 차별의 기준이 되는 잣대는 항상 중요한 정체성의 핵심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국제적 차원에서 유로화는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이 연구는 ‘일국 일 화폐’라는 국가 또는 민족공동체와 화폐의 상호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도입한 유로의 사례를 통해 화폐와 집단 정체성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빌리그의 일상적 민족주의 이론이나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은 정치 또는 경제적 논리에 기초하여 추진된 단일 화폐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한다. 유럽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로를 통해 유럽 차원의 정체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거시 역사적으로도 특정 화폐와 해당 민족 공동체의 관계는 단순히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무척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해 적어도 10년 이상 노력하였고, 그래서 얻어낸 결실이기 때문에 더욱 강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은 외부와의 관계 및 경계 지역에서 형성되고 드러나는 특성을 가진다. 유로존에 속해 있는 국가와 그 밖에 위치한 국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위기를 통해 표출되었다. 또한 유로존은 그리스, 에스파냐 등이 국제 시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지원책을 만들어 내는 등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서 통화 통합에 이은 재정 정책 협력 또는 통합의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일국 일 화폐’의 원칙은 하나의 국가가 자신이 만들어가는 민족 공동체의 경제적 수단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통제하는 것이었다면, 유럽은 ‘일 화폐 일 공동체’로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하나의 공

동체를 구성해 내는 비슷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화폐는 스미스가 지적 하듯이 공동체의 상징이자 가치이고 기억이기에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매체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가 아닌 정체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2010년 그리스 및 일명 돼지들(PIIGS: Portugal, Italy, Ireland, Greece, Spain)의 위기는 오히려 유로에게 위난 극복의 공동의 신화까지 만들어주는 기회로 부상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Aglietta, Michel. 1992. "Genèse de la Banque centrale et légitimité de la monnaie." *Annales ESC* 3. pp. 675-698.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Billig, Michael. 1995. *Banal Nationalism*. London: Sage.
- Bourdieu, Pierre.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Paris: Editions de minuit.
- Bruter, Michael. 2003. "Winning Hearts and Minds for Europe: The Impact of News and Symbols on Civic and Cultural European Identit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6(10). pp. 1148-1179.
- Bruter, Michael. 2005. *The Citizens of Europe?: The Emergence of Mass European Identity*. London: Palgrave.
- Burgoyne, Carole and David Routh. 1999. "National Identity, European Identity and the Euro." Keith Cameron. *National Identity*. Exeter: Intellect pp. 107-124.
- Cameron, David. 1998. "Creating Supranational Authority in Monetary and Exchange-Rate Policy: The Sources and Effects of EMU." Wayne Sandholtz and Alec Stone Sweet. *European Integration and Supranational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88-216.
- Chinn, Menzie and Jeffrey Frankel. "Why Euro Will Rival the Dollar?" *International Finance* 11(1). pp. 49-73.
- Cho, Hong Sik. 2005. "Interests and Identity in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France and Britai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5(5). pp. 103-129.
- Commission Européenne. 2010. *Eurobaromètre 72. L'opinion publique dans l'Union européenne: Rapport*. Février. Bruxelles.
- Eichengreen, Barry. 2008. *Globalizing Capital: A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 Monetary Syste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ichengreen, Barry and Jeffrey Frieden. 1994.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Monetary Unification: An Analytical Introduction." Barry Eichengreen and Jeffrey Frieden.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Monetary Unification*. Boulder: Westview Press. pp. 1-24.
- Fligstein, Neil. 2008. *Euroclash: the EU, European Identity and the future of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den, Jeffrey. 2006. *Global Capitalism: Its Fall and Ri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Norton and Company.
- Glyn, Andrew. 2001. "Aspirations, Constraints and Outcomes." Andrew Glyn. ed. *Social Democracy in Neoliberal Times: The Left and Economic Policy since 198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0.
- Helleiner, Eric. 1998. "National Currencies and National Identi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1(10). pp. 1409-1436.
- Hix, Simon. 1999. *The Political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London: Palgrave.
- Jones, Erik. 2005. "The Benelux countries: Identity and Self-interest." Simon Bulmer and Christian Lequesne. eds.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4-184.
- Kaelberer, Matthias. 2004. "The Euro and European identity: symbols, power and the politics of European monetary un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0(2). pp. 161-178.
- Luna-Arocas, Roberto, Gustavo Guzmán, Ismael Quintanilla and Mino Farhangmehr. "The Euro and European Identity: The Spanish and Portuguese Cas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4), August. pp. 441-460.
- Meier-Pesti, Katja and Erich Kirchler. 2003(a). "Attitude Towards the Euro by national identity and relative national statu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4(3), June. pp. 293-299.
- Meier-Pesti, Katja and Erich Kirchler. 2003(b). "Nationalism and patriotism as determinants of European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s the Euro." *Journal of Socio-Economics* 32(6), December. pp. 685-700.
- McKinnon, Ronald. 1963.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 McNamara, Kathleen R. and Sophie Meunier. 2002. "Between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Power: What External Voice for the Euro?" *International Affairs* 78(4). pp. 849-868.
- Moravcsik, Andrew. 1998.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üller-Peters, Anke. 1998. "The significance of national pride and national identity to the attitude toward the European single currency: A Europe-wide comparis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9(6), December. pp. 701-719.

- Mundell, Robert. 1961.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51.
- Newsweek. 2008. "Economic Triumvirate." <http://www.newsweek.com/2008/12/19/economic-triumvirate.html>(검색일 2010. 6. 30)
- Pérez, Sofía. 2004. "Constraint or motor? Monetary integ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social model in Spain." Andrew Martin and George Ross. eds. *Euros and Europeans: Monetary Integration and the European Model of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ermone, Jean-Louis. 1993. *Le système politique européen*. Paris: Montchrestien.
- Risse, Thomas. 2003. "The Euro between national and European identity."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0(4), August. pp. 487-505.
- Risse, Thomas, Daniela Engelmann-Martin, Hans-Joachim Knope and Klaus Roscher. 1999. "To Euro or Not to Euro: The EMU and Identity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5(2). pp. 147-187.
- Smith, Anthony D. 1991. *National Identity*.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 Tilly, Charles. 1992.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Oxford: Blackwell.
- The Economist*. 2008. "Seeking Shelter: Countries outside the euro zone are worried, but joining may not be easy." October 30th http://www.economist.com/world/europe/displaystory.cfm?story_id=E1_TNVNPJNP(검색일 2010. 5. 10)
- The Economist*. 2010. "The Icesave Referendum: No Thanks." March 4th <http://www.economist.com/node/15622367>(검색일 2010. 6. 24)

Currency and Identity: The Euro and European Identity

Cho, Hong Si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ongsil University

The theory of banal nationalism by Billig and the theory of habitus by Bourdieu explain that the single European currency, which was created for political or economic reasons, can serve as a booster for a new identity once people begin to use it in their everyday life. We already have several indications of that kind of trend in the European Union. From a macro-historical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cy and corresponding national community has been not simply instrumental but very much affective and sentimental. The same process can be identified in the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This is because Many European countries had “tightened their belt” during the preparation phase of the single currency and consequently became deeply attached to the result. Finally, identity is formed and expressed most significantly in the relationship with outsiders and on frontiers.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euro, clear differences have appeared among insiders and outsiders of the Eurozone. In the recent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Eurozone countries have demonstrated their ability to mobilize resources, showing the way for fiscal policy cooperation or/and integration following the monetary union. While the classical “one currency, one country” principle has served the state using currency as an economic instrument in forging national community, European “one currency, one community”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similar movement of community formation by money.

Key Words: Currency, Euro, Identity, Europe, European Union, Eurozone

